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교회 주일예배
열왕기하 16:1-4
2025 년 9 월 14 일 오전 11 시

다윗 왕조의 돌연변이

< 주여 도우소서 >

성경은 대부분의 남유다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은 마치 유전자에 변이가 일어나듯, 다윗 왕조답지 않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왕하 16:3). 아하스 왕은 우상을 숭배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까지 불에 태워 이방 신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믿음을 이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도 변질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우리 가정과 교회도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혹자는 구약의 하나님을 사랑이 없는 무자비한 신으로 오해를 합니다. 허나 진짜 무자비한 신들은 이방 신들입니다. 이방 신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 중 악명 높은 신이 몰록(몰렉)입니다. 몰록은 어린이들을 제물로 받습니다. 사람들은 신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장자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출 13:2). 그래서 처음 태어난 양과 염소 그리고 송아지 등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허나 제물로 바칠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나 사람은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출 13:13).

1. 아하스의 죄악과 불신앙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라 제물로 바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귀의 첫 새끼를 제물로 바치는 대신 어린 양을 대속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대속물 대신 대속금, 속전을 바쳤습니다.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다섯 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이십 게라이니라”(민 18:16). 속전은 은 5 세겔입니다. 은 5 세겔은 은 60 그램으로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약 \$80 정도에 해당하지만, 이는 실제 당시 가치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은 5 세겔로 어린 양 한 마리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어린 양 한 마리 값으로 아기를 대속하는 것은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대속 제도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방 신 몰렉은 생명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말 그대로 바치는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이 처음 얻은 아들을 불에 살라 바쳤습니다. 그러면 몰렉이 자신에게 다산과 풍요 등 축복을 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공’과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희생시키는 현대판 몰렉이 존재합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가족과 자녀를 희생시키며 현대판 몰렉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을 엄하게 금하셨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 18:21). 그리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레 20:2).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와 같은 취급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아합 가문조차 직접적으로 행한 기록이 없고, 아합 집의 사위였던 여호람과 아하시야 왕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아하스 왕은 다윗 왕조의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칼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왕하 15:37).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아람이 사마리아를 공격하기도 하고, 북왕국이 다메섹을 점령하기도 한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자, 이 소식이 전해진 예루살렘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사 7:2). 아람 군대가 에브라임의 군대와 합류하였다는 소식에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의 왕 베가의 군사 동맹과 유다 침공의 목적은 다윗 왕조를 끝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사 7:6).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의 왕 베가는 강대국 앗수르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반(反)앗수르 동맹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가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앗수르에 기대려 하자, 무력으로 유다를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단순한 압박에 그치지 않고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 꼭두각시 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허나 하나님의 목적은 아하스 왕의 회개입니다. 따라서 다윗 왕조가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사 7:3).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주 여호와와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사 7:7). 이 전쟁으로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다브엘의 아들이 왕이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실제로 아람과 에브라임 연합군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이 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왕하 16:5).

2. 성전의 변질과 제사장의 타협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앓수르 왕에게 구원을 청합니다. “아하스가 앓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7 절). 그리고 성물을 앓수르 왕 디그랏 빌레셀에게 바칩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앓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8 절). 위기의 순간,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까?

앓수르 왕은 아하스의 요청대로 다메섹으로 진군합니다. “앓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9 절). 앓수르 군대가 온다는 소식에 아람과 북왕국 군대는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철군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패권 국가였던 앓수르는 다메섹을 점령하고 아람의 왕 르신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아하스는 앓수르 왕을 알현하러 다메섹으로 갑니다. “아하스 왕이 앓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10 절).

아하스는 앓수르 왕의 얼굴을 보러 다메섹에 갔다가 아람의 신 림몬의 제단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제단은 놋으로 만들어진 놋 제단입니다. 허나 림몬 신의 제단은 돌로 만들어진 돌 제단입니다.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크고 아름다운 제단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그 제단을 자세하게 그려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수치까지 포함시킨 일종의 청사진을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에게 림몬 신의 제단의 그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헌데 제사장 우리야는 아하스 왕이 보낸 그림을 받자마자 신속하게 그 제단을 만들어 성전 뜰에 세웠습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11 절).

제사장 우리야는 놋 제단 앞에 새 제단을 버젓이 두어 하나님의 권위를 격하시켰습니다. 이는 일제가 경복궁 앞에 총독부를 세워 왕조의 권위를 짓밟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나마도 다메섹에서 돌아온 아하스 왕의 명령으로 놋 제단은 한쪽으로 치워졌습니다. “또 여호와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와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14 절). 아하스는 하나님의 제단을 구석으로 밀어내고 이방 신의 제단을 성전 중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야에게 앞으로 모든 제사는 새 제단, 큰 제단에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쭈어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15 절). 그리고 놋 제단은 자신이 하나님께 문의할 때만 사용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갖 잡신을 섬기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여쭈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앞으로 하나님의 제단은 사용하지 않고 림몬의 제단만 사용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제단은 찬밥 신세가 되었고, 림몬의 제단이 주인 행세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배당은 있지만,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아하스 시대의 성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아하스 왕의 이러한 행태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뿐입니다. 지금까지의 대제사장들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비록 왕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충성하였습니다. 요아스 왕이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라는 우상 숭배를 책망하였습니다. 또한, 웃시야 왕이 분향을 하려고 할 때 대제사장 아사라는 막아 서며 하나님의 법을 상기시켰습니다.

3.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헌데 대제사장 우리야는 림몬 신의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세우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제단을 구석으로 몰아놓고 림몬 신의 제단에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라는 왕의 명령을 따릅니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16 절). 여러분, 왕의 명령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롬 13:1). 그러나 그것은 그 권세자가 하나님의 일꾼 역할을 할 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롬 13:4).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할 때입니다.

만약 위에 있는 권위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악행을 명령할 때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는 안됩니다.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남자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므라라 하는 사람과 푸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출 1:15-16). 여러분, 바로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까? 노예의 자식은 죽여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살인하지 말라**”(출 20:13)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과 배치되는 악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십브라와 부아는 죽이라는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출 1:17). 그 결과는 무엇이였을까요?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죽임을 당하였을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출 1:21).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명에 불복종한 산파들의 집안은 오히려 흥왕하고 번성하였습니다.

헌데 대제사장 우리야는 불복종해야 할 아하스 왕의 명령을 그대로 따릅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데에는 대제사장 우리야 역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야 제사장은 왕의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께 불충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운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우리야의 타협’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세상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의 기준을 세상의 흐름에 맞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아하스 왕과 제사장 우리야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와 우리야가 하나님의 제단을 밀어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다시 온전한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영원한 제단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